

강용주의 '인권 광장'



술 권하는 사회, 빛 권하는 사회

-광주복지재단 출범에 부쳐

“이 조선 사회란 것이 내게 술을 권한 다오. 알았소? 팔자가 좋아서 조선에 태어났지, 딴 나라에서 났다면 술이나 먹을 수 있나...” 현진건의 단편소설 ‘술 권하는 사회’입니다. 일본 식민지하 우리나라를 상징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2015년 오늘은 어떨까요? ‘빛 권하는 사회’가 아닐까 싶습니다.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저축률은 23.2%로 세계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던 우리나라가 이제는 빛이 일상이 됐습니다. 텔레비전에서는 ‘대출을 해주겠다’, ‘전화 한 통만 하면 몇 백만 원씩 그냥 주겠다’는 광고로 가득합니다. 이런 광고가 얼마나 친근한지, 어린이들이 대부업체 CM송을 동요처럼 흥얼거리는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한 세대 사이에 미국의 중산층이 무너져 내리는 걸 우리는 목격했습니다. 미국에서는 1년에 150만명 정도가 파산신청을 하는데 그 중 90%가 실직·의료·가족해체 등으로 빚을 졌기 때문이었습니다. 게으름이나 도덕적 해이 때문이 아니라, 어려워진 경기로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 직장이 안정적이지 않다는 걸 깨

닫지 못했고, 까다로운 은행의 계약 조건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대출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1990년대, 미국의 은행들은 규제완화로 금리 한도가 사실상 없어지면서 빚을 갚을 가능성이 낮은 사람들에게 높은 금리로 대출해서 이윤을 늘려갔습니다. 사람들이 파산신청을 해도 신용카드 수수료와 이자가 높기 때문에 은행은 결국 많은 이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은행은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에게 계속 대출을 장려하고 권합니다.

우리나라도 ‘빛 권하는 사회’가 됐습니다. 은행이나 대부업체의 곳간엔 돈이 넘쳐납니다.

하지만 해마다 100만명 이상의 청년들이 새롭게 빚을 지고, 전세난과 월세 상승으로 집을 사서 대출 갚느라 일상생활을 영위하기도 어려운 하우스푸어가 250만 가구나 됐습니다. 장기연체자가 350만명입니다.

가계부채는 나날이 늘어 1200조 원에 이르렀고 그중 절반이 ‘생계형 대출’입니다. 기존 대출이자를 내고 나면 생활비가 부족해 다시 돈을 빌리는 악순환에 빠진 것입니다.

해외 주요 언론들은 금융 위기 당시의

미국보다 우리나라의 가계 부채 문제가 더 심각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은 물론 중상위 계층도 80% 이상이 빚을 지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 사회 구성원 대부분은 빚의 노예로 전락한 ‘빚 공화국’입니다.

그동안 정부는 빚내서 집 사고 빚내서 소비하라는, 부채 주도 성장정책을 유지해 왔습니다. 복지로 풀어야 할 저소득층 문제를 방치하니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은 빚의 악순환으로 더욱 깊게 빠져들게 됩니다. 이러한 부채 중심의 성장 구조는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라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광주의 경우는 어떨까요? 광주시 평균 인연 3121만원보다 소득이 낮고 다세대/단독 주택 비율이 높은 지역에서 자살 발생이 많았습니다. 광주지방경찰청 자살 사고 자료를 보니, 자살의 원인으로서는 정신 문제(특히 우울증)가 28%로 가장 높고 그 다음이 경제 문제로 22%인데, 부채 때문인 경우가 가장 많았습니다. 나이스평가정보에 90일 이상 연체정보 보유 비율이 높은 자치구 순으로 자살시도한 사람의 수가 많았습니다. ‘경제적 자살’이라고 할 만합니다.

광주시는 ‘학교 밖 청소년, 비정규직,

이주민, 교통 약자, 빈곤, 자살’ 문제 등을 6대 핵심 인권영역으로 선정했습니다. 자살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기존의 정신질환 뿐 아니라 개인이 처한 사회경제적 상황, 즉 빈곤과 같은 근본적인 원인을 고려해야만 합니다. ‘빈곤-카드연체-대출-빈곤’이라는 악순환을 벗어나야 자살률도 낮아질 수 있습니다. ‘자살 공화국’의 다른 말은 곧 ‘빚 공화국’입니다. 빚 때문에 동반자살하는 사람들의 뉴스가 끊이지 않습니다. 빚은 우리 모두 함께 풀어야 할 사회적 과제가 됐습니다. 빌린 자의 의무만 있고 빌려준 자의 책임은 없는 걸까요? 과도한 빚을 권하는 행위와 법과 제도로 보장되어 있는데도, 빚을 온전히 개인 책임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이런 문제의식으로 서울·성남 등 여러 곳에서 시민들의 빚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서고 있습니다.

‘광주복지재단’도 시민들의 빚 문제를 가장 시급하게 다루주면 좋겠습니다. 과도한 빚을 지게 되는 취약 계층, 더 나아가 서민과 중산층에게 빚과 채무 문제를 전문적으로 상담하고 문제를 함께 해결해 나가는 곳이었으면 합니다. 소중한 생명이 걸려 있기 때문입니다.

<광주트라우마센터장>

종교칼럼



일담 김진 객원사 주지

동안거(冬安居)

서는 이때부터 동안거 백일기도를 시작합니다. 추운 겨울 한철을 수행과 정진을 빚으로 삼아 내면을 다지는 겨울안거입니다.

1년에 두 번 동안거 집중수행은 부처님께서 실천하셨을 때부터 시작됐습니다.

부처님이 인도에서 설법을 하시며 유행하실 때 인도에서는 비가 석 달 내내 내리는 우기가 있었습니다. 한곳에 머물지 않고 돌아다니며 수행하는 스님들에게 우기철은 큰 곤욕이었습니다. 또한 탁발을 하러 가다 땅에 기어다니는 곤충들을 밟아 죽이거나 상처를 입히는 경우도 생겼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제자들이 비가 내리는 동안은 돌아다니지 않고 한곳에 머물면서 집중수행을 하자며 부처님께 권의를 하게 됐습니다. 그 의견이 받아들여져 하안거 동안 일년에 두 번씩 집중수행

하는 전통이 생겼습니다. 그 전통이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와 스님들도 안거중에 돌아다니는 것을 가급적이면 삼가고 사찰에서 수행을 하게 된 것입니다.

스님들처럼 한곳에 머물며 집중수행을 하지 못하는 재가자들은 주변 사찰에서 함께 100일 기도를 하면서 수행을 합니다.

화엄사상에 보면 1~10까지를 원만수라고 합니다. 10의 10배인 100은 그래서 원만하고도 원만한 수로 존중받았습니다. 또한 100일 기도는 우리 민족과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단군신화를 보면 우리 민족의 시조모인 웅녀가 100일간 속한 죽과 마늘 20개를 먹고 햇빛을 보지 않고 기도를 해서 사람들이 변해 환웅과 혼인하여 단군왕검을 낳았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마을에서도 애들이 태어나서 백일이 되면 잔치를 합니다. 요즘은 모르겠지만

옛날에는 태어나서 100일을 채운다는 것도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또 100이라는 것은 많은 숫자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 많은 나날 동안 기도를 일심으로 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동안거 기도를 시작하는 날은 입재라고 하고 백일기도가 끝나는 날은 회향한다고 합니다.

회향이란 백일기도가 끝나는 날 자신이 뒤은 공덕을 다른 중생들에게 베푸는 의미입니다. ‘원이지공덕 보급어일체 아등여중생 동건무량수 개공성불도(願以此功德 普及於一切 我等與衆生 同見無量數 皆共成佛道)’. 원하옵건대 이 모든 공덕이 모든 중생들에게 골고루 미치어 저와 함께 다른 모두 중생들도 모두 다 성불하기를 바라옵나이다. 묘법연화경에서 나오는 회향게송처럼 동안거 기도가 모든 중생들에게 아름답게 회향되기를 기원해 봅니다.

기고

아름다운 문장을 키우는 숲의 연가



박상건 시인·섬문화연구소장

목만 860만 그루가 넘는다. 소나무재선충병은 매개충인 솔수염하늘소가 재선충을 몸속에 지니고 소나무 수피를 갉아 먹어 전염된다. 전염 순간, 100% 말라죽는다.

그래서 ‘소나무 에이즈’라고 부른다. 매년 수백 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지만 완전 방제작업도 완전치랴오 없다.

최근 9명의 기자와 함께 이런 고충을 겪는 스페인 포르투갈의 산림현장 취재단과 동행했다. 비가 쏟아진 가운데 스페인 농림부 산림국장의 안내를 받으며 꼬불꼬불 산길을 돌고 돌아 이베리아반도 국경지대에 도착했다. 스페인에 재선충병이 처음 발생한 것은 2008년, 포르투갈 국경과 500m 떨어진 에스트라두마주(Extremadura州) 국경지대이었다.

스페인 전체 산림 1400만ha 중 700만ha가 솔수염하늘소 재선충은 매우 치명적이었다. 스페인은 감염목 반경 20km 이내에 인력과 장비, 헬기를 동원해 예찰에 나섰고 3km 이내의 소나무를 모두 벌목했다. 약 3만t에 달하는 소나무가 사라졌고 210만유로, 예찰에 34만5000유로가 소요됐다.

남한 크기의 포르투갈은 한 때 스페인과 함께 세계를 호령했으나 2013년부터 IMF 규제 금융 중역 재선충 예산마저 확

보 못해 지난 10년간 40만ha의 숲을 잃었다. 국토 3분의1이 솔수염하늘소 감염된 소나무는 바로 제거 후 유칼립투스를 심었다. 종이를 생산하는 유칼립투스는 성장기간이 12년으로 소나무 40년에 비하면 경제적 가치가 큰 셈.

그러나 숲은 경제적 가치뿐 아니라 정서적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하다. 숲을 30분 산책했을 때 사람의 심박 변이도가 안정되고 긍정적 감정이 증가하며 인지력이 향상된다. 15분간 숲을 보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농도가 15.8% 낮아지고 아토피와 우울증도 치유는 물론 도심 열기와 소음을 낮추고 이산화탄소를 정화한다.

몇 해 전 가을 산을 찾았을 때 태풍이 휘둘러 간 참참한 폐허의 숲을 보았다. 그 숲에서 나는 이런 시를 썼었다. “지금 숲에는 풀빛, 마찰음, 허공에는 사선의 가지들이/햇살줄기를 가위질 하고 있다/질러 나간 햇살들이 방아깨비처럼 툭툭 튀어 오르는 것을 보면/숲의 생명력은 팔팔팔 짝 뛰는 햇살의 힘에 있다/(종략)/넘어지면 넘어진 대로 서로의 목침이 되고/팔베개가 되어주는 사선의 삶/경계 없는 세상 이 숲을 이루고” (“상수리나무 숲에서” 중에서)

그렇게 윤희의 시간을 거친 나무들은

김화영의 ‘글의 침묵’처럼 우리 감성을 자극하며 “저장한 거리에 떨어져 서서 이따금씩만 바람소리를 떠나보내고……문득 어둠이나 무(無), 그리고 무에서 또 하나의 겨울나무 같은 문장”의 숲을 이룰 것이다. “그 속을 천천히 거닐고 싶어 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우리 곁에서 숲 살 것이다.

성철스님처럼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라는 영롱한 아포리즘으로 인간의 생각과 판단이 달라진다고 해서 산과 물이 없어지거나, 뒤바뀌지 않는다는 자연의 도와 진리를 일깨워 줄 것이다.

숲이 옹양인 종이 소리는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전 세계 연간 종이소비량은 약 4억만 톤. 30년생 원목 66억 3000만 그루 분량이다. 우리나라 1인당 종이소비량은 세계 11위로 높이 18m 지름 22cm의 소나무 87그루를 소비하고 있는 셈이다. 숲의 규모로 보면 90mi 로 30년 세월 가꿔야 하는 양이다.

우리나라 목재 자급률은 10%에 불과해 수입에 의존한다. 대부분 목재를 수입하는 보르네오 섬은 아시아의 허파로 부르는데 원시림의 30%가 사라졌다. 저자손손 전해줄 우리 금수강산이 이런 절망의 숲으로 사라지지 않도록 내 몸, 내 영혼처럼 우리 숲을 되살리고 보존할 때이다.

社說

규제 완화 없이 광주 면세점 유치 어렵다

우리 경제의 낮은 규제가 지역 균형 발전의 발목을 잡고 있다. 해외 관광 객을 끌어들이 수 있는 광주 지역 대형 면세점 또한 규제가 풀리지 않으면 유치가 쉽지 않아 보인다.

광주신세계는 서구 광천동 일대에 특급호텔을 지어 면세점을 유치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현행 규정으로는 불가능한 일이다. 전년 대비 외국인 입국자가 30만 명 이상 증가한 시(市)에만 면세점 신규 특허를 내주도록 관세법이 묶고 있기 때문이다. 특허 기간도 10년에서 5년으로 줄었다. 허가도 힘들지만 5년에 한 번씩 다시 승인받아야할 정도로 까다롭다.

지난 2013년 이 법안이 도입된 것은 관련 업계의 무분별한 팽창을 막는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최근 서울이나 부산의 면세점들은 몰려드는 ‘유커’(중국인 관광객)로 황금알을 낳고 있다. 해당 도시 4곳의 면세점은 올해 특화가 만료돼 금명간 신규 사업자가 결정될

예정이다.

서울이나 부산은 한 해 수백만 명의 외국인이 몰려 요건을 충족하는 데 전혀 걸림돌이 없다. 반면 광주를 다녀가는 외국인은 한 해 6만 명에 불과하다. 웬만한 지방도시는 지역 활성화를 위해 면세점 개설을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할 형편이다. 정부의 규제가 본의 아니게 지역 차별의 무서운 족쇄가 된 셈이다.

법이 바뀌지 않는다면 광주·고남에서 중국 관광객들의 지갑을 여는 일은 포기해야 할지 모른다. 무안공항이나 제주를 통해 지역에 들어온 중국인들이 쇼핑을 위해 서울과 부산으로 떠나도 먼 발치로 쳐다만 봐야 하는 실정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기회 있을 때마다 규제 완화를 설파해 왔다. 서민생활과 경제활동에 지장이 되는 각종 인증제도의 철폐도 좋지만 지역 불균형을 조정하는 장비부터 무너뜨려야 한다. 정부는 지방에서도 면세점 운영이 가능토록 법규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수능으로 지친 심신 이젠 문화로 풀어라

201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이 어제 전국 1212개 시험장에서 일제히 치러졌다. 이날을 위해 그동안 입시 준비에 매진해 온 수험생들의 노고에 격려와 위로를 보낸다. 수시 입시의 비중이 높아지면서 수능의 비중이 예전과 같지 않다고는 하지만 초·중·고 12년의 공부가 이날 시험 한 번으로 결정되는 만큼 수험생들의 긴장감은 극에 달했을 것이다.

따라서 이젠 그동안 스트레스로 지친 심신의 피로를 풀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할 때다. 일단 수능이 끝나면 공부로부터의 해방감과 여가 시간 증가로 인해 자칫 허탈감에 빠져 헤멜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럴 땐 전시와 공연, 예술 교육 등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을 통해 장기간 찌든 몸과 마음을 힐링할 필요가 있다.

우선 문화체육관광부가 광주 등 전국 5개 지역의 수험생들을 대상으로 주최하

는 문화예술교육 지원 사업 ‘2015 상상만개’ 프로그램이 있다. 이 프로그램은 학교를 직접 찾아가는 ‘고(Go), 고(Go), 고 3’과 수험생이 개별 신청해 참여할 수 있는 ‘살을 짓는 상상’ 등으로 이뤄졌다. 참가 학생들은 직접 교가에 맞춰 뮤직비디오를 제작하거나 여러 장르의 예술가들과도 만날 수 있는 좋은 기회다.

광주 유·스퀘어 동산아트홀에서는 수험표를 가져오는 수험생에 한해 12월27일까지 연극 ‘연애를 부탁해’의 입장료를 50% 할인해 주며 ‘기분좋은 극장’은 12월 6일까지 열리는 연극 ‘발칙한 로맨스’의 티켓 가격을 50% 할인해 주는 이벤트를 제공한다. 수험생들은 두 연극 모두 1만 5000원에 관람할 수 있다.

사실 수험생들은 지난 시간 못지않게 교육 등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을 보내야도 중요하다. 때문에 시험 결과가 상관없이 자신의 장래에 대한 고민도 진지하게 해 볼 필요가 있다. 수능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無等鼓

‘위작’이 문제가 되는 것은 ‘돈’이 걸려 있어서다. 전문가들이 원본과 위작을 구분하는 데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이는 이유다. 하지만, 바로 ‘돈’ 때문에 ‘위작을 위작으로 판별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가끔은 일어난다. 거액을 주고 사들인 그림이 위작으로 드러날 경우 사회적인 파문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위작을 사들였다는 불명예, 그리고 진품으로 잘못 판정한 전문가들이 재야 할 책임도 ‘위작 판별’에 장애가 되곤 한다. 위작 판별

위작 판별

대표적인 사례가 1940년대를 풍미한 네덜란드 출신 위작 제작자 ‘판 메이헤란’이다. 그는 ‘진주 귀걸이를 한 소녀’로 유명한 17세기 네덜란드의 대가 ‘요하네스 베르메르’ 전문가였다. 그는 1945년 5월 29일 네덜란드 경찰에 체포됐다. 혐의는 ‘위작 제작’이 아니라 ‘독일에 대한 협력 죄’였다. 1942년 나치 괴뢰 원수가 구입한 베르메르의 그림 ‘간음한 여인과 그리스도’의 제작자가 메이헤란이라는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메이헤란은 ‘그림은 내가 그린 거야’라고 해명했지만 경찰은

우리나라에서도 얼마 전 고인이 된 천경자 화백의 ‘미인도’를 둘러싼 위작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고인이 ‘내가 그리지 않았다’고 밝혔고, 그 그림을 그렸다는 사람까지 나타났지만 일부에선 ‘진품’이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참다못한 국회에서도 국립현대미술관에 ‘미인도를 재검정하도록’ 촉구했다.

최근 일부에서는 ‘위작을 판별할’ 간단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다. 미인도를 그렸다는 사람을 불러 다시 그려 보도록 하자는 것이다. 선례도 없으니 시도해 볼 만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홍형기 정치부장redplane@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김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程厚植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1(일간)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우편번호 61482)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경 제 부 2200-632 문화생활부 2200-661	경영지원국 2200-515 (F A X 222-8005) (F A X 222-0195)	문화사업국 2200-541 (F A X 222-9500) (F A X 222-9500)
편집부 2200-649	여론매체부 2200-696	광고매케팅국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정 치 부 2200-642	체 육 부 2200-697	다 자 인 실 2200-536	서 울 지 사 02-773-9331
(대표 FAX 222-4918)	사 진 부 2200-693	프 로젝 트 팀 2200-555	(F A X 02-773-9335)
사 회 부 2200-663	조 사 부 2200-571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대표 FAX 222-4267)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독자투고·기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기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불편 사항 등을 보내주세요. 채택된 원고는 고료를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광주시 동구 금남로 238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96 /팩스 062-222-4918 /e메일 opinion@kwangju.co.kr